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호 [루계 제2578호]

주제 109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음력 1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자주적령도의 귀감을 창조하신 희세의 정치가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강령의 신령과 의지, 비범한 령도력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세인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격찬하면서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에 집트자유사회주의 자당 부위원장인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 각 하께서는 자주적령도의 귀감을 창조하시었다.

세계는 김정은 각하의 령도밑에 주체의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위대한 성과들을 경탄속에 바라보고있다.

조선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는 자력에 의거

여 국가발전을 힘있게 전진시켜오신 김정은 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슬로벤스프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세계 진보력량을 말할하려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현 국제정세는 김정은 동지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도 조선인민은 세인을 놀라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격찬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사회주의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김정은 각하를 모시어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고있다.

김정은 각하께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높이 칭송하고있다.

앞으로도 조선인민은 김정은 각하의 절출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중국, 로씨야, 쿠바, 몽골, 인디아, 이란, 네팔, 배네수엘라의 통신, 신문, 방송, TV방송을 비롯한 광범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보디에서 조선에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이 절실히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번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고 하시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자들의 체제붕괴를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할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의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로씨야의 파스통신, 쿠바의 브레타 라파나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평양에서 소집되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을 높이며 과학, 교육, 보건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고 전원회의의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각국 언론들의 광범한 보도와 함께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의 반향도 컸다.

마자르로동당은 성명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국내외

세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조선의 발전을 위한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내용의 보고를 하시었다. 온갖 도전과 난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성명에서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이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여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를 지지하는 성명들이 발표되었다.

여러 나라의 개별적인 사람들도 이번 전원회의의 소식을 접한 자들의 심정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로씨야 연대시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들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한편 메히코와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 대한 통보모임, 독보회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12월전원회의의 소식은 자주와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는 진보적인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행성을 들뜨게하는 조선의 소식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은 행성을 들뜨게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 각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결기대회와 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기대회가 5일 평양에서 진행되는데 이어 강원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남포시를 비롯하여 각 도와 시들에서 련이어 진행되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멸의 기치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의 전진할로를 열기 위한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투쟁에 총열기,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근로단체들에서도 결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기대회가 21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정책관철의 최후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의 용용한 기상을 과시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우렁차게 울려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줄 쉼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러 결의행진이 있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와 글발들이 쏘여진 프랑카드, 손구호들을 들고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우리 당의 영광을 높이고도 성스러운 투쟁에 총열기,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다》 등의 구호에 우렁차게 화답하며 거리를 누비나가는 행진대오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의 최후대,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일 열렬적충돌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융숭유졌다.

《조선청년행진곡》, 《사

세멘트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단위들과 농업, 과학, 교육, 보건, 국토관리, 문학예술, 체육부문 단위들에서도 결기대회가 진행되었다.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건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막아서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격

파하고 뜻깊은 올해의 정면돌파전에서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결기대회

조국소식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 준공식 진행

얼마전 풍치수려한 모란봉기슭에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이 개건되어 준공하였다.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은 수도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온갖 사랑을 다 들려주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상문화교양기지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란봉기슭에 몸소 야외

극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친히 이름까지 명명해주시었다.

여러차례 극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많은 유감사항과 문화오락기재들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을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라고 계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1만여석의 관람석과 소조실 등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음향 및 조명설비들을 갖춘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이 사상문화교양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수도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령도에서는 그 전진을 저애하는 객관적요인이 작용하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억척하고 고립압박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압박들은 집요하고 악랄하며 이것은 공화국의 전진을 저애하는 주요한 객관적요인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이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순응하는가, 아니면 객관적요인을 지배하는가에 따라 제국주의의 노예로 사는가 아니면 자주적인민의 삶을 구축해나가는가 판가리된다고 볼수 있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점령에 의하여 국가의 존엄을 잃고 인민이 불행과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나라들은 그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큰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큰 나라가 승인을 안해주면 아무리 자국에 절실한 리해관계가 있는 일도 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더우기 경제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세계적인 경제파동이 일어나면 나라의 경제기반이 통째로 흔들려오곤한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꺼져버리는 초분처럼 객관적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메의없이 생명과도 같은 국가의 존엄을 짓밟히지 않을수 없다.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그 어느 국가가

자주적신념으로 전진하는 나라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는것은 공화국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고 완전히 질식시켜 압살하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고말았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조건과 환경이지만 공화국은 객관적인 불리한 조건에 순응하는 길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국가의 힘을 끊임없이 비축하면서 승리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고있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는것은 공화국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고 완전히 질식시켜 압살하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고말았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조건과 환경이지만 공화국은 객관적인 불리한 조건에 순응하는 길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국가의 힘을 끊임없이 비축하면서 승리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고있다.

몇해전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두만강연안에는 배방후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다.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되었으며 인민들이 보금

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된것도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 포로되지 않고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는 공화국의 힘있는 전진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그 어떤 난국도, 그 어떤 대재앙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자주적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을 막을수 없다.

물론 공화국에는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과 객관적요인이 필요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화려한 번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한 자주적신념이며 공화국인민의 의지의 역적이다.

국가 존엄을 지켜 돌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자주적 불멸침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온 공화국의 력사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울수룩 조선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 무슨 일에서나 땀과 노력을 들여야 좋은 결실을 거두는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봄철과 여름철에 가물현상도 나타났고 고온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속에서도 이 땅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 지난해에도 공화국에서는 농사에 불리한 조건과 날씨가 계속되었다. 적대세력들의 악착스러운 제재소동이 절정을 이룬데다 9월초에는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봄철과 여름철에 가물현상도 나타났고 고온에 의한 피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속에서도 이 땅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이러는 각각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객관적요인을 지배하고 놀라운 소출을 낸것이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390여개의 농작물과 4000여개의 작업, 1만 5000여개의 분조가 다수확단위대에 들어서고 그 전해보다 4만여명이나 더 늘어난 10만 2000여명의 다수확농장원이 배출되었지만 보이도 협동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얼마나 빠짐을 들어 농사를 잘 지었는가를 보여준다.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만만시련을 강행돌파하시며 민족자주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시는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백두의 기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셨다.

허장성세하며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적대세력에게 주눅이 들어 타협과 양보의 길로 나가는것은 곧 죽음이요, 결사의 각오로 맞받아나가는 국가와 인민에게는 비굴하게 굽어들지만 동요하면서 방어에 급급하는 대상에게는 피를 물고 덤벼드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국가의 존엄사수전, 인민의 운명수호전에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렬히 맞받아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고유한 특징이다.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최강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략적투신과 그 실현을 위한 령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그 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에서 최강의 무기로 내세우시는것은 결사의 의지로 맞받아나가는것이며 가장 경계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 침식되는줄도 모르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가는것이다. 력사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이라면 생사를 가능하기 힘든 화선에 서슴없이 나서서 자기희생적 자세로 맞받아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은 강철의 령장을 알지 못하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무자비하게 짓궂게버리며 민족의 자주위업을 공격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처럼 짧은 기간에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기적적승리가 다계단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격적인 외교활동으로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민족의 존엄을 최절정에 올려세우시었다. 정치와 군사, 외교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백두의 공격정신을 구현하였기에 나라의 하늘이 영원히 푸르게 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경제건설대진군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었다. 일반적으론 경제건설에서 조건과 환경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조건과 환경은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며 남이 가져다주는것은 더욱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힘을 믿고 맞받아나가는 불리한 환경도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고 창조와 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공화국의 력사는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의 기수가 되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끊임없는 양양으로 이끌어오시었다. 라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원수님의 열정과 투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무한대 전진동력이요 그의 드센 담력과 배짱은 공화국의 존엄이고 기상이 될수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빨찌산식공격전법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수들을 찾기도 찾으시며 새로운 영웅신화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주시었다. 절세위인의 애민헌신의 서사시적행로에서 폭력강행군, 심야강행군이라는 시대가 태어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황금산, 황금별, 황금레의 새 력사가 수놓아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인민경제의 주체화, 자립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도처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서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은을 내게 되었다.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이 일어나고 마식령속도, 려명진화화 같은 새로운 기적과 비약의 진군속도가 창조된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정신의 빛나는 구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적인 현저지도강행군이야말로 공화국의 전진에 크나큰 활력을 부여주고 공화국의 모든 부문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는 원천으로 되어있다.

지금 공화국이 벌리는 정면돌파전은 단순히 부단친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여기에는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가 깃들어있고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훌륭한 인민에 대한 그의 굳은 믿음이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도 모두다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어 승리의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쳐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대난 배짱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있기에 공화국에는 두려움도 없고 승리의 밝은 미래가 기약되어있다.

오영철

사랑의 힘, 영명의 힘이

무릇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올해 정초부터 공화국의 발전속도는 빠르다. 중산의 뚝을 높이 올리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별, 주별계획이 초과완수되고 협동천야마다에서는 새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다. 과학연구기체들에서도 새 기술개발을 위한 사색과 탐구의 열기가 드높다.

공화국에서 새해에도 약동의 숨결이 더욱 높여지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령도자에 대한 믿음을,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갈 때 승리는 반드시 온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슴마다에 두렵없이 감았다고 하시던 말씀.

이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과 압살을 물리치고 압살해에도 커다란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로 말미암아 많은 제약을 받고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지난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이 마련되었으며 삼지연시구리기 2단계공사가 결속되어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가 건설되었다. 또한 중평남새은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인민들에게 선진명명의 창조물을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와 순천리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전국을 비롯한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는 하나의 선물도 훌륭히 일떠세우시려고 무려 2000여건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새벽문을 남면저 여시고 깊은 밤에도 또다시 인민을 찾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강행군길, 그 길에는 비내리는 건설장의 감탕길, 찬바람 불어치는 공장의 구내길도 있고 한몫의 위험도 고생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서슴없이 나서신 조국수호의 전진길도 있다.

인민을 위한 그의 헌신의 세계는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는 하나의 선물도 훌륭히 일떠세우시려고 무려 2000여건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쩔수 없는것이라 시간에서 쟁쟁한 필력을 과시하던 시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닥쳐왔다. (아직 반야안은 사랑에 보답하자면 빌었는데... 어드님나도 고목이 되었던 말인가?)

80고령에 이르러 시간을 떠나게 된 박세영선생의 심중은 참으로 착잡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년로보장을 받고 자식들의 부양을 받는것은 너 무도 자명한 리치였었다.

어제는수없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있던 그에게 어느날 꿈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박세영선생이 창작활동을 계속하면서 여생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그를 다시 창작의 대오에 세워주시었다는것이였다. 그것도 청춘의 기백을 안고 영리한 로쇠를 모르고 살도록 금성청년출판사에서 문학창작을 계속하도록 해주신것이였다.

「나 는 40대에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 청춘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80고령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서 영리한 청춘을 받아안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하는 삶을 주시고 시를 주시였으며 청춘의 심장을 주신 그 위대한 품을 손잡아 지는 마지막까지 노래 불러 청춘하겠습다.」

이렇게 다시 든 붓으로 그는 서정시 《90청춘을 노래하노라》, 시조 《광복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창작 완성하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들끓는

그것은 인민을 위해 바치는 아버비의 한없이 넓고 끝을 모르는 사랑과 헌신의 세계이다.

사기에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누구나 그의 령도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가고있는것이였다.

자기들을 믿으시고 삼지연군(당시)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그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건설전투를 하였다. 건설자의 진정의 목소리, 농사를 더 잘 지어 놓고 다시 만나자고 하신 그의 약속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정보당 수확량을 훨씬 끌어올렸다는 다수확농민의 소박한 이야기, 고기비늘은 배전에 앉으시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그의 모습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풍랑사나운 날바다를 헤가르는 항구의 주인공으로 뿔수 있었다고 진정을 토로하던 어로공들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에서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나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단친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은 불확한 난관들앞에서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할것이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고풍을 함께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의 정면돌파전도 사랑의 힘으로 하고 믿음의 힘으로 하고있다. 그 힘을 당할 자 이 세상 어디에 있랴.

어로부터 믿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고 하였다. 믿음을 얻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뚫고 나아가는 정면돌파전이기때문에 그 승리는 필연적이고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전지개벽된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어 가장 힘있는 나라, 가장 존엄있는 나라로 그 이름 빛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하늘가에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진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은금에 자런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의 이 영광과 함께 맞다 마치 이 조선길이 받드세

강도 일제를 몰아낸 삼천리강토에 《해방만세》의 환호성 높이 울려 퍼지던 그때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영지와 자부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끝없이 부강번영할 조국을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공화국인민들의 드림없는 의지를 품어안고 변명헌 송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으며 풍부한 자원으로 가득찬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사는 공화국인민들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깊이이었고 무거운 정서로인 시어로 품어안고 형성한 《애국가》를 들으며 세기가 바뀔 오늘도 사람들은 시인 박세영선생에 대하여 생각하곤 한다.

사람들이 《애국가》를 쓴 그에게 찬사의 말을 할 때마다 박세영선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애국가》의 작가가 저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사실 《애국가》는 어느 개별적시인이나 작곡가가 창작한 노

래가 아닙니다. 항일의 불비속을 뚫고 조국을 찾아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여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조국찬가이며 조국송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에게 《애국가》를 쓸데 대한 구체적인 상을 안겨주시고 시어 한마디, 시구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다듬어 완성시켜주시었습니다.》

이렇듯 절세의 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에 떠받들려 시인은 한생애 《박세영시선집》을 비롯한 10여권의 개인시집들과 작품집, 근 2000여편의 동요, 동시와 서정시, 서사시, 가곡들이 《불멸의 력사》, 《견우직녀》, 《춘향전》 등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은 내 놓아 공화국문학의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다.

그는 원래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두모리(당시)태생이였다. 어린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었던 그는 1922년에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당시)를 졸업하고 그후 《새누리》, 《자유신중보》 등의 동인지지를 발간하였으며 염군사를 거쳐 카프의 성원으로 되어 조선의 진보적시문학발전에 깊은 자욱을 남기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그를 가리켜 《산세비시인》으로 칭하였다. 그만큼 그가 쓴 시 《산세비》라고 하면 중심에 새겨진 인상깊은 시구절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것이다.

나라였던 그 시절 식민지 문인의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그에게도 해방이라는 따뜻한 해살이 비쳐들었다.

그 나날 해방의 은인이신 아버지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였다. 그래서 그는 해방된 남조선땅에서 자신의 열정과

공화국의 품에 안겨

《애국가》와 함께 빛나는 한생

재능을 깡그리 바칠 각오를 가지고 서울시인민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기간 《위원회에 가는 길》, 《휘날려라 붉은기》, 《산천에 묻노라》 등 여러편의 서정시들을 창작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울드고 꽃피던 그의 꿈과 희망은 또다시 기어든 외세의 남조선정국으로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었다.

그가 다니던 서울시인민위원회는 강제해산당하였고 민주주의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갔으며 친일파를 비롯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머리를 쳐들고 또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하여 시인은 정의의 필봉을 힘있게 틀어쥐고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허위와 위선에 찬 반인민적인 정체를 폭로규탄하면서 원수들의 그 어떤 감언리설에도 속지 않고 투쟁의 길에 나설 확고한 사상적지향을 노래한 시 《그리하여 나의 소리》를 비롯하여 시 《민족반역자》, 《너희들도 조선사람이냐》, 《나도 새 사람 되리》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쓰고 또 써도 외세가 주인공을 하는 남조선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암담해지기만 했다. 그럴수록 인민이 주인되어 행복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북녘땅에 대한 그리움,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마침내 시인은 운명전환의 길을 선택하였다. 하여

1946년 6월 박세영선생은 38° 선을 넘어 북쪽에서 오 그리던 공화국의 품, 김일성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품을 찾아 사신을 넘어온 시인을 몸소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어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에 대해 묻기도 하시어 가장형편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기도 하시면서 해방된 우리 나라에 민족문화를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고, 작가, 예술가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웨쳤다. 《장군님,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높이 받들고 새 민주조선의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달후 시인은 자기가 안긴 품이 얼마나 위대하고 따사로운 품인가를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어느날 한 일군이 찾아와 그를 태우고 곧장 경치아름다운 문수봉기슭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글씨 아담하게 꾸러진 집앞에 이르자 남쪽에 두고왔던 아들딸이 《아버지!》 하며 달려와 옷속에 메달리는것이 아닌가.

글고보니 수령님께서 일군들을 보내시어 그의 가족을 평양으로 데려오도록 하시고 서재가 달린 집필실과 여러칸의 살림방이 있는 주택, 옥백미를 배려해주시었던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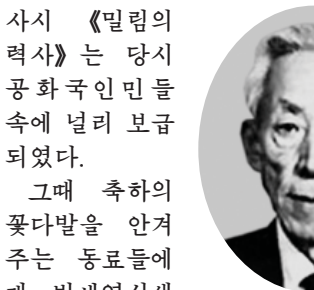
해방전 저주로운 그 세월에 병마와 기아로 숨진 어린 세 아들과 딸 하나를 이롭게 하는 산기슭에 차가마한 부분으로 런달아 남겨놓고 피는 물을 뿌리며 땅을 치던 그였도 황토먼지 이는 이국의 방랑길에서는 단칸집 하나 마련할수 없어 눈보라치는 겨울날 제그러져가는 다리밑에 거죽매기를 두르고 거처해야 했던 시인이었다.

그때 복받치는 걱정을 그는 서정시 《해방에서 살리라》에 담았다.

영명하신 우리 령도자 있기에 새 나라 민주조선은 통성하고 날로 새로워짐이 아니오리까 그 빛 해살같이 온 땅에 비쳐 우리를 행복에로 이끌어 주나니 무엇을 서슴오리 우리 다 그 해벌에서 살리라 하여 밝으신 그 령도따라 나가리라 빛나는 민주주의 새 나라로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과 덕망에 끌리어 매혹되고 그의 대해같은 사랑에 격정을 터치었던 그날의 심정을 평생 잊지 않고 시인은 공화국의 언덕과 언덕을 이어가며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 완성하였다.

특히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50돐에 드린 송가인 장편서



박세영선생

사시 《밀림의 력사》는 당시 공화국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동료들에게 박세영선생은 나는 평생 시를 써왔는데 시인으로서는 자기 조국의 가장 위대한분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시인가고, 이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였다고 절절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서정시들인 《술속의 가수명석》, 《나팔》, 《가수명석》, 《빛나는 조국》, 《승리의 5월》, 《동백꽃》, 《립진강》, 《우리는 천리마라고 말한다》, 《변영하라 조국이여》, 《평양은 마음의 고향》 그리고 동요 《보고싶은 원수님》 등은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잡았으며 오늘까지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인물이 한평생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고목에도 꽃을 피우며 영리한 청춘을 노래할수 있었는 것은 바로 그를 이어 배풀어지는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본사기자

파렴치한 경로강탈야망의 산물

일본이 최근 도교의 한복판에 그 무슨 《경로주권전시판》이라는것을 새로 확장하여 개관하였다.

원래 《경로주권전시판》은 일본이 독도 등이 자국 경로라고 주장하는 선전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바야공원에 있는 시정회관 지하에 100㎡규모로 꾸러놓았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전시관이 지하에 있어 관람객들이 잘 오지 않고 전시공간이 비좁은데다 그 내용도 빈약하다는 구실로 지난해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거쳐 이번엔 개관식을 거쳐 정식 문을 연것이다.

일본이 사람들의 쾌왕이 갖은 곳에 더욱 확장된 전시관을 설립한것은 자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독도가 그 누구에게 빼앗긴 저들의 땅이라는것을 인식시켜 저들의 《독도영유권》주장을 공인

시키려는 음흉한 속셈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난 시기부터 일본은 신성한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해서나 타고잡아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독도가 저들의것이라고 우겨대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한다 일언도 하고 북극소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해마다 그 무슨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이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또한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중앙과 지방의 신문들에 독도에 대한 《명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방위백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써넣어 조야박고 학교들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관확장설립놀음도 일본의 집요한 독도강탈책동의 한 고리이다.

독도는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절대로 넘겨다볼수 없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이다.

그것은 역사적사실자료들과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립증하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2018년에 과거 일제강점시기 일본왕실의 역사학자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하여 만든 지도집이 공개된 사실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 지도들은 1914년부터 30여년간 일본군내성 도서로 《왕실도서, 기록보관과 실록편찬을 담당하는 기관》 편수관으로 일하면서 왕실력사

연구를 해온 시바 가즈모리가 제작한것이라고 한다. 가즈모리가 1927년과 1931년에 제작한 《일본력사지도》와 《신원일본력사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의 소속이 명백히 《조선》으로 표기되어 있다.

독도는 조선의 불가분리의 영토이며 그 영유권문제를 놓고 일본에는 가라바라할 아무런 논거도, 구실도 없다.

독도가 저들의 영토라고 우겨대는 일본의 책동이 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한 첩면피한 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는 끈질긴 주입으로 자국민들이 독도가 《빼앗긴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과거의 침략범죄를 친미하도록 만들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거이어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야망이 깔려있다.

실지 일본에서는 수상을 비롯한 정객들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로골적으로 부정하고있으며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계속되고있다.

헌법을 개악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책동이 집요하게 추진되고 군사대국화에 박차가 가해지고있다.

욕망이 극도에 이르면 분별을 잃게 되고 망상이 지나치면 운명을 망칠수 있다.

과거에 일본은 미친듯이 부풀어오르는 경로강탈욕망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망상때문에 종래 패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릇된 욕망과 어리석은 망상은 일본을 헤여날수 없는 무서운 함정으로 몰아가고있다.

김재석

현대의 광대극인 《보수대통합》 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세력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얼마전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야당들과 보수정치단체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것을 내왔다. 그런데 통합을 누가 주도하고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겠는가 등의 문제를 놓고 각당, 각파의 알뜰과 마찰, 견제대립이 수습할수 없을 정도로 더욱 표면화되고있다고 한다.

《보수대통합》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자한당》이 《공정》과 《중립》을 운운하며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새로운보수당》은 여기서 밀리면 저들이 먹먹알이 없다며 《자한당》과만 《당대당통합》을 내오고 통합합의제를 협상할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총망에 량당통합기구를 내오기로 하였으나 여기서도 서로 우위를 차지하겠다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판이다.

보수통합의 범위를 놓고서

도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보수통합에 《새로운보수당》과 《우리공화당》만 끌어들이면 《도교세력》으로 비쳐져 중도층을 끌어당길수 없다고 보고 《보수대통합》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파까지 끌어들이려고 현일 추파를 던지고있다. 그러나 《새로운보수당》은 보수통합을 철저히 《자한당》과의 1대1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변치면서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있다고 한다.

통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알뜰과 모순, 대립은 보수정당들사이에서뿐아니라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내부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자한당》내에서는 친박근혜파들이 박근혜탄핵과 관련하여 사죄도 하지 않고있는 《배신자》들을 쫓아내며 모셔오려 하고있다. 무리대고 받아들이면 탈당하겠다고 위협하고 조선, 해선의 원들도 여기에 합세해서 보잘것없는 신생정당이 큰손을 치며 정통보수의 큰집을 허물려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반기를 들고있는 형편이다.

《새로운보수당》내에서는 일부 세력들이 우리가 《자한당》에 팔아먹기 위해 신당을 만들지 않았다, 휘당보다는 독자로서 가야 한다면서 통합합의안에 반대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군사야당세력들은 저들의 리속과 타산만을 위한 수단일만 핑기면서 통합에 싯트 동참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더우기 해외도교생활을 마치고 남조선으로 돌아온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안철수와 같은 경우 《실용적 중도정치》를 내려고 《자한당》이 주도하는 보수통합에 나서지 않겠다고 로골적으로 표명하고있다고 한다.

모여들만 한 구심점도, 내들만 한 리념도 없는 정치동물들, 오로지 권력을 노는 동상야망과 권력소굴수밖에 모르는 야심가들이 그 무슨 《통합》을 하겠다는것이야말로 세상웃기는 회대의 광대극이다.

원래 《자한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비록 보수라는 한을 라리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리해관계를 따지고 안숙을 차리는데서는 추호도 양보를 모른다.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중도층까지 끌어당기는 《보수대통합》을 운운하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권력을 탈취해보겠다는 야심이 있다. 권력이면 사족을 못쓰는자들이 저혼자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황교안의 앞은 추이 호응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어찌 싸움이 안 벌어졌겠는가.

《보수대통합》의 막뒤에서 벌어지는 보수세력들의 퍼터지는 싸움질을 두고 남조선 각계가 《정치명명미진》이라고 비난하며 조소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생이야 어찌되든 자파의 권력야욕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서로 물고뜯으며 개싸움질을 일삼는 인간추물들의 신질머리나 행태에 남조선 민생은 찰을 빼고 등을 돌려만 지 오래다.

한광일

얼마전 남조선군부가 20일부터 31일까지 광도에서 진행된 미군주도의 다국적연합반잠수함훈련인 《씨드콘 2020》에 남조선군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고 밝히었다.

다국적연합반잠수함훈련인 《씨드콘》은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와 공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해마다 남초에 미해군의 주도 밑에 남도주변에서 실시되어오고있다.

지난해 미국, 오스트랄리아가 진행한 다국적연합반잠수함훈련에 가장장비와 병력을 참가시키지 않고 움썅버로 참관만 하였던 남조선이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이 참가한 이번 다국적연합반잠수함훈련에는 자기의 해군무역을 파견하여 참가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남조선군부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이고 은폐된 적대행위에 광분하다 못해 태평양 한복판에까지 나가 전쟁불장난놀음에 끼어

하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2중적행태는 새해에 들어와서도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지난 한해 외세와 각종련합훈련을 뺀것만 버려놓아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다.

저들의 리속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가리지 않는 상전의 분담금중역압박에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비굴한 웃음만 짓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가궁한 처지는 실로 꼴불견이다.

새해범두부터 대세에 역행하여 벌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군사적망동은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도교에서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투쟁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지난 17일 일본 도교에 있는 미프리스종공의회사실에서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성노예피해자 할머니 량금덕과 남조선과 일본의 시민모임소속 성원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피해자할머니 량금덕은 과거 성노예범죄에 대해 일본

의 사죄를 받고싶다. 일본의 책임을 세계에 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거스를수 없는 세계적흐름이며 회사속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내용은 요청서를 미프리스종공의회사속에 들어갔다.

그들은 《아베는 사죄하라.》고 웨치며 일본정부의 부당한 태도에 항의하였다.

본사기자

이제는 태평양 한복판에서까지

드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정세악화와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화근덩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상전의 비위를 맞출수만 있다면 죽을데 살데 가리지 않고 그 어디든 찾아가 대포발노릇을 자청하는 이런 열간망동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다. 일단 벌리면 《평화》를 떠들면서 행동에서는 전쟁불장난에 광분

하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2중적행태는 새해에 들어와서도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지난 한해 외세와 각종련합훈련을 뺀것만 버려놓아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다.

저들의 리속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가리지 않는 상전의 분담금중역압박에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떻게 하나 살아보겠다고 비굴한 웃음만 짓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가궁한 처지는 실로 꼴불견이다.

새해범두부터 대세에 역행하여 벌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군사적망동은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뜻하여 련합해상훈련 《퍼시픽 뱅가드》, 잠수함련합훈련, 해병대련합훈련과 같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았던것만 결국에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데서 주요한 작용만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외세추종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한 현 남조선당국이 응당 받게 되는 평가이고 비난이라 하겠다.

남조선인민들은 독재통치의 시너, 《정치검찰》로 악명을 떨친 검찰을 지체없이 개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서오고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과 검찰패거리들은 민심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당국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한사코 반기를 들고 방해해나서고있다.

최근에도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개편에 대해 《검찰대학살》, 《권력연장을 위해 지지를 철회》,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는 청와대》 등 각종 험담을 내뱉으며 반발해나서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검찰은 독재통치를 뒷받

침하고 민주개혁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선것으로 하여 파쇼독재권력의 돌리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인민들로부터 중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박근혜보수 《정권》시기 검찰이 정보원성거기입사건과 《세월호》호침몰사건, 성완중사건 등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 축소논의 피사자를 주로 박근혜의 죄악을 감싸주고 독재자의 손과 발이 되어 돌아간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유신》독재부활과 정보세력말살에 미쳐달려는 박근혜의 손발이 되어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자유민보》를 폐간시켰으며 진교조의 합법적지위를 박탈하는 데 앞장선것도 바로 검찰이

본사기자

남녘민심의 《정치검찰》 해체요구

높아가는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

남조선 각계에서 외세에 추종하여 주대없이 높아진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어른들은 남조선당국이 《제재틀안에서의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것》, 《국제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등 잡꼬대같은 소리만 웨치면서 때없이 《한미실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크고작은 문제들까지 사사건건 승인과 지시를 받으려고 했기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다》, 《제손으로 재발을 묶어놓은 격이 되었다》, 《스스로 무시

를 차조하였다.》고 평가하고있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지난해 한해동안 북남합의리행을 뒤엎어 미루어놓고 오히려 은폐된 방법으로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세를 긴장시켰다고 하고

어른들은 남조선당국이 《지역적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훈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노력을 뒤받침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동맹19-1》훈련을 비

롯하여 련합해상훈련 《퍼시픽 뱅가드》, 잠수함련합훈련, 해병대련합훈련과 같은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았던것만 결국에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데서 주요한 작용만 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외세추종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한 현 남조선당국이 응당 받게 되는 평가이고 비난이라 하겠다.

지 않았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미군기지의 반환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 통산미군기지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반환을 위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남조선 《경향신문》이 16일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해 폭로하였다.

신문은 대구와 경상북도, 경기도 의정부, 전라북도 군산 등지에 있는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유해

로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엔 발견된 화학물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자연에서 저해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생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이전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의 환경오염실태 폭로



《우리공화당》이 쪼개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전에 《우리공화당》이 생겨날 때부터 울려나온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공화당》이라는것이 권력을 쫓는

실질상 《우리공화당》에서 내본은 당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벌리는 란투극에 지나지 않는다.

가관은 《우리공화당》의 공동대표라는자들이 당내에서 지반을 확보하기 위해 저저마다 박근혜라는 《신

주》를 모시겠다며 싸움질을 하고있는것이다.

《우리공화당》내부에 잠재해있던 갈등이 폭발한것도 얼마전 당에 늦게 들어온 공동대표라는자가 유류분방출에서 박근혜가 《우리공화당》이라는 명칭을 달라고 알려준것은 자기라고 하면서 《우리공화당은 내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나에게 준 당이다.》고 한 발언이 계기로 되었다. 이에 《우리공

본사기자 주광일



얌은뱅이가 서면 천리를 가나?

최근 남조선국방부 장관 정경두가 매일같이 대결말문을 쫓고있다.

그는 새해범두부터 여기저기를 썰다니며 《북이 2020년 국전전환을 위해 전략적 및 전술적도발을 언제든 진행할수 있다》, 《철저한 군사적대항에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얼마전에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 국제공동회의》라는데서도 《북이 지난해에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위반하였다》, 《북이 군사활동을 늘이고있다》,

《북의 군사적동향을 예의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외세의 침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군사적도발책동을 자취도 모르는 쉰수아비의 가스로운 객기에 불과하다.

제 목에 붙은 허바닥이라고 마구 놀려대다가는 세인과 남녘민심의 조소와 규탄을 받고 실날같은 명

줄이나마 부치지 못할수 있다.

보잘것없는 정경두머리가 《단호한 대응》, 《강한 힘》, 《승리》에 대해 목청을 돋우며 허세를 부리는 꼴은 정신병자, 상머저리와 일맥상통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얌은뱅이가 서면 천리를 가나?

능력도 없고 수단도 없는 주제에 무슨 큰일이나 칠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는 차라리 저들이 처한 처지나 한탄하는것이 어떨는지...

인디아로부터 아라비아반도를 거쳐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사는 히에나라는 짐승이 있다. 사나운 짐승이 먹다버린 줄말, 들알 등의 고기나 썩은 고기를 먹으며 사는것이 히에나라의 생존방식이다. 특히 썩은 고기를 먹는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히에나라보다 못한 존재들이 남조선에 있다. 《우리공화당》이 그렇다.

《진박(진짜박근혜) 감별사》로 자처하던자가 박근혜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무죄처방을 돈을 절개하겠다고 떠들면서 《자한당》에서 뛰쳐나와 《태극기부대》 세력을 주축으로 만든 우익보수정당인 《대한국당》에 《자한당》내에서 권력다툼에 밀려난 송사리가 가세하면서 생겨났것이 《우리공화당》이다. 《우리공화당》은 이렇다 할 리념과 정

견도 없이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것으로서는 각계가 평하듯이 당이 아닌 사이버종교단체 불과하다.

이런 《우리공화당》이 최근 개파싸움으로 분열직전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공화당》내부

본사기자 유급주

히에나보다 못한 인간추물들

본사기자 유급주

본사기자 유급주

본사기자 유급주

본사기자 유급주

본사기자 유급주

자들의 집합체로서 공동대표라고 하는자들자체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누가 누구든 가져가면 짓밟아버리는것을 특기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이 당운영과 보수통합 등을 둘러싼 견해차이라든 공동대표들간의 다툼을 예서 가리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자루속의 송곳을 감추어보겠다는 어리석은 놀음이다.

자들의 집합체로서 공동대표라고 하는자들자체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누가 누구든 가져가면 짓밟아버리는것을 특기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이 당운영과 보수통합 등을 둘러싼 견해차이라든 공동대표들간의 다툼을 예서 가리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자루속의 송곳을 감추어보겠다는 어리석은 놀음이다.

자들의 집합체로서 공동대표라고 하는자들자체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누가 누구든 가져가면 짓밟아버리는것을 특기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이 당운영과 보수통합 등을 둘러싼 견해차이라든 공동대표들간의 다툼을 예서 가리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자루속의 송곳을 감추어보겠다는 어리석은 놀음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청춘의 재능과 희망이 꽃피는 곳

— 청년 중앙 회관을 찾아서 —

청춘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언제나 드높은 청년 중앙회관이다. 이곳 회관에는 노래보급소, 미술소, 가야금소, 손풍금소, 무용소 등 여러개의 소조실들이 있는데 그 어느 소조실이나 학생청년들과 근로청년들로 흥성이고있다.

우리와 만난 리복란 소조 운영과장은 청년중앙회관은 1989년에 창립되었다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소조생활을 통하여 재능과 희망을 꽃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방향을 맞아 청소년학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약전소조

실이었다.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전자공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전자회로를 새롭게 구성하는 소조원도 있었고 각종 전자제품들을 보며 새로운 착상을 무르익히는 소조원들도 있었다. 알고 싶어하는 문제도 달랐고 만드는 창작품도 각이했지만 지식의 탐을 더 높이 쌓아 가려는 그들의 포부는 하나 같았다.

그 포부를 꽃피우는 날에 그 언덕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창고의 안배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약전소조

나서는데 가야금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들러보니 장고장단에 맞추어 한창 소조원들이 가야금을 연주하고있었다.

흥취나는 민요 《옹헤야》의 가야금곡조를 들으니 어깨가 절로 들썩이였다. 연주가 끝난 후 우리는 경흥지도국 로동자로 일하고있다는 김현희소조원을 만났다.

그는 《가야금연주기량을 높여가는 소조생활이 정말 즐겁고 시간가는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

들을수록 흥그러워지는 노래가락은 노래보급소, 손풍금소조실에서도 울려나왔다.

무용소조실에 들러니 소조원들이 노래 《바다 만풍가》의 곡조에 맞추어 흥취나는 춤가락을 펼치고있었는데 숨씨가 보통이 아니였다. 그 모습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김은경지도교원은 수줍음의 편지를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는 소조실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훌륭한 제자들 뒤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회관창립과 더불어 이곳에서 오래동안 일해오고있는 미술소조의 소기혁지도교원과 컴퓨터소조의 김기환 소조원들을 훌륭히 키워낸 공로있는 교원들

이 군중문화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을 편지에 써보내곤 합니다. 전국청년학생들의 독창, 독주경연에서 1등을 한 제자의 편지도 있답니다.》

편지들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한장한장의 편지마다에서 춤과 노래로 일터를 들쭉게 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가는 청년학생들의 량민적인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다.

우리는 소조실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훌륭한 제자들 뒤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회관창립과 더불어 이곳에서 오래동안 일해오고있는 미술소조의 소기혁지도교원과 컴퓨터소조의 김기환 소조원들을 훌륭히 키워낸 공로있는 교원들

였다.

화술소조의 남선영지도교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소조원들에게 화술훈련을 주고있었다. 동대원구역 동대원고급중학교의 림현일 학생은 방학기간에 이곳에서 화술기술훈련을 하고있다고, 화술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것이 알린다고 말하였다.

이곳 회관에서는 정보기술강습실도 운영하고있었다. 오명호실장의 말에 의하면 기초반과 전문반으로 나누어 한달가량 컴퓨터실기교육을 집중적으로 주고있다고 한다.

평양시의 공장, 기업소 근로청년들뿐만 아니라 고급중학교 학생들도 앞을 다투어 찾고있는 정보기술강습실에서 그들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었다.

강습회에 참가한 평양곡산공장 로동자 리일혁은 자본주의나라 같으면 청년들이 재능을 하나 배우자고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희망과 소질에 따라 돈 한푼 안 내고 마음껏 배울수 있다고, 이런 고마운 제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진정 대동강기슭에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나란히 서있는 청년중앙회관은 누구나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는 청춘들의 정든 집이었다.

소조실의 그 어디서나 끝없이 울리는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더욱 밝아질 청춘들의 미래를 그려보며 우리는 청년중앙회관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 철

얼마전 우리는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있는 통일애국투사 손성모선생의 가정을 찾았다.

올해 이혼사를 맞이한 손성모선생은 나이에 비해 젊어보이고 혈기에 넘쳐있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손성모선생은 얼마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장엄한 정면돌파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시었다고 하면서 솜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손성모선생은 조국의 품에 안겨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금방석에 앉아 만복을 누리고있다고 하면서 지나는 나날을 더듬었다.

전라북도 부안군의 가난한 소작농가에서 태어나 망국의 설음속에 살아온 그는 해방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공화국복반부를 끝없이 동경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용약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수많은 전투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전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던 나날에 조국의 귀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절감한 손성모선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성

스러운 애국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후 철창속에서 19년간 파초교형리들의 야수적인 고문과 박해속에서도 통일애국의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 굴함없이 싸워온 손성모선생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꽃피어 가는 길에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조국통일상을 비롯한 높은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제4차 전국로병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그를 대표로 불러주시고 값높은 삶을 누리도록 따뜻한 보살펴주시었다.

손성모선생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선던 자기가 오는 대를 이어 수령님을 누리며 로당익장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러면서 그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한생의 귀중한 재부로 간직하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판철을 위한 오늘의 거창한 애국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전명진

행복의 금방석 위에 앉아



모란봉의 흰눈 풍경



흥취나는 율놀이 풍경

율놀이는 옛날부터 우리 겨레가 설명절마다 즐겨해 온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율놀이는 놀이방법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좋은 오락으로서 율가락과 율말, 율판 등 놀이도구가 간단하고 몇사람이든 짝만 맞으면 할 수 있으며 또한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놀 수 있다.

가족, 친척끼리 집안에 둘러앉아서 놀 수도 있으며 혹은 넓은 마당에 명석을 편 다음 그우에 율판을 차려놓고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도 있다.

처음엔 아이들 놀음이라

며 집잔을 빼다가 권유에 못이겨 율놀이판에 앉은 어른들도 일단 율가락이 던져지고 율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등심에 빠져 저도 모르게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 율놀이이다.

《율놀이비결》은 말도 있듯이 때로는 머리 허연 사람이 젊은이한테 지고 한 번만 더하면 다음에는 꼭 이길 것만 같아 또 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광경이 펼쳐져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활짝 꽃피고 있는 공화국에서 어디를 가나 율놀이를 즐

거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어느때도 그리하지만 특히 설명절날이면 누구나 율놀이와 율가락이, 연피우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하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곤 한다.

이번 설명절을 계기로 평양시와 각 지방의 도시와 마을들, 기관, 기업소들에서 떠들썩한 웃음속에 율놀이경기가 진행되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 2동 25, 26인민반에서도 율놀이경기로 흥성거렸다. 인민반장들인 조성영, 김선희는 율놀이를 하면서 한바탕 웃고나면 흥취가 나면서 가정과 아파트에 기쁨과 화목,

우애와 단합이 두터워진다고 말했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이 세나라시기가전부터 율놀이를 즐겨 온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만년민족사에 오늘날 율놀이와 전민적적인 대중음악으로 어디서나 활기를 띠고 진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하던 율놀이가 공민이나 유년지, 넓은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무대로 판이 커지고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율놀이는 그야말로 흥성거린다.

율놀이풍경,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날이 활짝 꽃피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2)

세계적인 력기강자 엄윤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엄윤철선수는 2019년 국제 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남자 55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 출전하여 련결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166kg을 성공시킴으로써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끌어올리기에 있어서 128kg을 들어올려 종합 294kg으로 세계기록을 돌파하고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엄윤철선수는 2013년 뿔스까의 브로프와브에서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남자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하여 순간제기와 빠른 추기, 제치기는 련결동작들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추켜올리기종목에서 162kg을 성공시켜 제 1위를 하였다.

그는 도합 289kg(끌어올리기종목 127kg)을 들어올림으로써 종합 1등을 하고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그는 2013년 19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 140명이 참가한 아시아력기선수권

대회 56kg급경기에 출전하여 독특한 경기전법과 높은 기술로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 제 1위를 하고 종합 1등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이어 청년, 성인급 아시아력기 및 추켜올리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쟁취하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는 2014년 제17차 아시아력기대회 남자자력기 56kg급 끌어올리기에 128kg을 성공시키고 추켜올리기에서도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넘는 170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하여 종합 298kg을 들어올려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받았다.

그는 2014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하여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렸다.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엄윤철선수는 남자 56kg급경기에서 평시에 련마하여온 자기의 투기를 잘 살려 171kg을 들어올림으로써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세웠으며 끌어올리기에서도 131kg을 들어올려 종합 302kg으로 제1위를 하였다.

세계적인 력기강자로 공민된 엄윤철선수는 금메달로 조국을 받들 예극의 마음속으로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설명절민속놀이 몇가지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옆집같이 남작하고 무거운 물건에 종이나 키클것만 걸어서 차면서 노는 어린이들의 운동놀이이다.

제기차기는 한사람씩 개별경쟁을 할수도 있고 여럿이 편을 갈라 할수도 있다. 또 일정한 수자를 미리 정하고 그 수자를 먼저 차내기도 하며 일정한 시간내에 누가 더 많이 차는가를 겨루기도 한다.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얼음판이나 땅우에서 팽이를 제로 쳐서 돌리며 노는 어린이들의 놀이이다.

팽이치는 놀이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놀기때문에 서로 재간을 겨루게 된다. 팽이치기에는 몇사람씩 편을 갈라서 일정한 거리를 팽이를 치면서 갔다와서 팽이와 팽이채를 자기편 아이에게 전하고 또 그 다음 아이에게 전하여 먼저 끝나는 편이 이기는 집체적인 경기도 있었다.

썰매타기

썰매타기는 얼음판이나 눈우에서 잘 미끄러질수 있게 날을 달아 만든 썰매를 타며 노는 놀이이다.

썰매에 올라앉아 두손에 썰매채를 쥐고 얼음판우를 힘껏 찍으면 썰매는 썩썩 앞으로 미끄러져나간다.

눈우에서 타는 썰매를 산간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떡국

떡국은 떡과 국을 끓여먹는 음식이다.

떡두지짐

떡두지짐은 떡과 콩을 찌고 만든 음식이다.

수정과

수정과(수정과)는 떡과 콩을 찌고 만든 음식이다.

팥설기떡

팥설기떡은 팥과 쌀을 찌고 만든 음식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세배풍습

세배란 설에 웃사람에게 하는 인사를 말한다. 세배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설명절 풍습 가운데서 첫번째로 손꼽힌다.

우리 민족은 설날이 오면 세배부터 하였다. 세배는 웃어른손으로 하였는데 우선 집안웃어른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웃어른들과 자기를 배워준 스승들, 친구들에게 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른이 된 자식들의 세배를 받으면 그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하였고 손자, 손녀들의 세

배를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들을 대견하게 여기며 기뻐하였다.

설날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한 레를 마련해 놓았다가 세배를 한 아이들에게 주었고 어른들에게는 설음식을 내놓았다.

이웃마을이나 먼곳에 사는 웃어른들에게도 세배를 다니었는데 보름전까지 세배를 가던 레의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

친구들사이에는 세배 모든 일이 잘되기를 축복하는 말인 덕담을 주고받았다.



친구를 만나면 《새해에는 아들을 보게나.》 하든가 《새해에는 소원을 성취하기 바라네.》 라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세배는 레의도 덕이 바른 율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맞이행사의 하나이다.

세배풍습을 놓고도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레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과 전통을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사화

결의삼형제 (4)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이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되어 사냥기로 소문난 판가의 형방이 포고들과 사령들을 거느리고 와서 박회준을 불러들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새 류수가 부임하였다.

신임류수는 부임하자마자 룡방관속들과 관판들의 현신을 받고 향교합배와 사직단 봉심을 마친 후 룡방관속들이며 교수이하 향청의 생도들까지 모두 모아놓고 고을의 실정을 알아보았으며 구금중에 있는 수인들의 죄목도 상세히 조사하였다.

간췌있는 죄인들중에서는 주인의 재물을 횡취하고 그 정실부인과 간통하였다는 박회준이 제일 큰 죄를 쓰고 있었다.

신관사또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부터 처벌하기로 하였다. 사또는 박회준의 죄행을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으로 변복을 하고 정회수의 정방군처에도 몇번 나가보았다.

동지달 스무날 첫새벽부터 동헌 큰 뜰에는 수백명의 남녀로소가 모여와있었다. 새 사또 도임후 첫 송사판결을 구경은 사람들이었다.

동헌의 상방알 대청중심에는 위엄있는 신관사또가 무겁게 앉아있었다. 그알의 한계단 낮은 마루에는 형리가 대기하고있고 섬돌아래에는 군노사령들이 삼엄하게 서있

었다. 형장을 잡고 사나운 눈을 부라리는 사령 두너석과 섬돌앞 한모퉁이에 퍼가 덕지덕지 말라붙은 형들이며 란잡하게 벌려있는 칼과 곤장무늬들은 한번 얼핏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었다.

사령들이 줄지어 서있는 그 한복판에는 긴칼을 쓰고 괴물은 옷을 걸친 박회준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었다. 모진 때를 맞았는지 상투가 풀려진 머리카락이 일곱과 팔이게 덮였고 얼굴형상도 말이 아니었다. 바지중이 나뭇가지 해어진 사리로는 몽고리진 살과 말라붙은 피멍이 보였다.

결경이 담을 이룬 군중들의 시선은 박회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람을 저 꼴로 만들어놓았느냐고 질책하는데 공포와 저주에 찬 눈으로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사또를 쏘아보기도 하였다.

모두 긴장하여있는 가운데 문득 군중속에서 처량하고 애처로운 녀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애고애고 벼락맞을 세상아. 어찌라고 무죄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드느냐. 하늘도 무심하구나!》

룡방관속이하 만장의 눈길은 아이업은 젊은 녀인에게로 쏠리다가 무서운 호령이 떨어질 위기를 느낀듯 차츰 대청에 높이 앉은 사또에게

로 옮겨갔다.

사또는 아이업은 젊은 녀인의 얼굴을 말없이 유심히 바라보고있었다.

박회준은 녀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인차 자기의 안해가 먼길을 걸어 찾아온것을 알았으나 《죄수》의 몸이라 어찌는수가 없었다.

형장부관으로 두팔을 벌리고 달려오던 녀인은 박회준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엎어졌다.

그것을 본 박회준은 눈물만 툭툭 떨어뜨렸다.

뜰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눈물을 머금었다.

잠시 지나 시녀 하나가 나와서 아이를 업은채 쓰러진 녀인을 안아일으켰다.

《숨이 진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명이 붙은것 같기도 하오이다.》

《음-》

사또는 눈을 스크르 감았다 뜨더니 아래를 굽어보며 말했다.

《그녀인을 안으로 옮겨 놓고 의원을 불러 보여라.》

그러자 형방이 섬돌아래 내려가 사령을 몇을 불러서 녀인을 내아로 옮겨가게 하였다.

사람들은 박회준과 그 안해의 눈물겨운 정상을 보고 슬렁거리었다. 땅이 끼치게 하는 사령의 손을 아니꼽다는 듯이 뿌리치고 집잔을 빼며 박회준이 옆에 가섰다.



사또의 령이 떨어지니 통인이 또 그 말을 옮기고 이어 사령 두너석이 박회준의 목에서 칼을 벗기고 그의 덤미를 끌어다가 섬돌앞에 내놓았었다.

《금방주인 정회수와 그의 애첩 출애도 불러왔느냐?》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예-!》 하는 대답소리가 나고 정회수가 사령들의 손에 끌리어 형장에 나타났다.

고운 명주바지저고리에 삼팔속색도포를 걸쳐입은 정회수는 사령의 손을 아니꼽다는 듯이 뿌리치고 집잔을 빼며 박회준이 옆에 가섰다.

그 순간 사령들이 촛대를 우악스럽게 끌어들여 박회준이와 정회수에게 세웠다.

《아뢰오. 금방주인 정회수의 애첩은 이미 잡혀갈 줄 알고 이웃으로 몸을 피하였사와 한동안을 찾아헤매느라 늦게야 대령하였소이다.》

《음- 저 세년놈을 모두 그 자리에 끌어앉혀라.》

박회준은 사또의 어조가 벌써 사나운것을 보고 몹시 리를 치며 끌어앉아 고개를 숙이였다. 그는 전 사또에게 바른말을 한탓으로 모질게 형을 당하였는지라 이번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있을 잡도리였다.

한편 정회수는 조금도 꺼리는 기색이 없었다.

《신관사또님께 일찌기 문안드리지 못하였을 백백 사과하옵니다. 소인은 이곳 금방주인이온데 지금 판정님 도임하신 소식을 듣지 못하였삽기로 현할 못하였소이니 널리 헤아려주시오이다.》

마루에 앉아서 그 꼴을

바라보던 형방이 들어페로 급히 내려가서 정회수의 도포소매를 붙잡아 그 자리에 끌어앉히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리 다사하오.》

정회수는 눈을 부라리는 형방을 멍뚱 보고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거리였다.

머칠전만 하여도 자기앞에서 설설 기던 형방이 이런 태도로 나올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럴 때 대청마루에서 죄인들을 이속히 내려다보던 사또가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회준이 네 이놈, 정회수는 귀한 량방가문의 선비 일뿐더러 일류 갑부로서 어진 분이라 하던데 네 어찌 어진 사람의 가문을 그리 어지럽혔느냐?》

《이놈 어찌 대답이 없느냐?》

박회준은 전신의 맥이 탁 풀리는것을 느꼈다.

《네 어찌하여 친구의 재물을 임의로 사취하고 탕진 하였으며 방자하게도 그의 부인을 유혹하여 간음하였느냐? 어허, 참으로 속이 시커먼 놈이로다.》

박회준은 어디서 들은 목소리 같았으나 엄혹한 법정인지라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이놈, 어찌 대답이 없느냐?》

사또가 박회준에게 벼락같이 호령하니 결에 있던 정회수는 그제야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여봐라, 그놈이 입을 열 때까지 정쟁이를 바스크고 불기를 쳐라.》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학자, 문인, 음악가인 성현(1439-1504)은 일찌기 아버지처럼 여의고 형제인 성인, 성간과 함께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당시 거문고대가인 리마치에게 거문고를 배워 기악명수로 되었다.

1462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홍문관 수찬, 직제학, 대제학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다.

그는 세차례에 걸쳐 다른 나라에 사절단으로 가서 그 나라의 이름난 문인들과 사귀는 과정에 재능있는 시인, 문장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문인, 학자로 이름을 날렸을뿐 아니라 장악원 제주로 되어 음악리론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장악원에서 재능있는 음악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새로운 기악악보인 《합자보》를 창안리용하고 주부 신말평, 전악 박근, 김복근 등과 함께 음악무용 리론총서인 《악학궤범》을 편찬하여 중세음악을 리론적으로 정리체계화

하였다.

이때 창안리용된 《합자보》에는 거문고합자보, 가야금합자보, 비파합자보 등이 있다. 《악학궤범》은 중세음악의 악물원칙과 응용방법을 정식화한 악곡, 악무(정제)의 연주형식과 절차, 악기, 의물(중종의 의식이나 행차때에 쓰는 물품)의 형체와 제작방법 등을 그림으로 설명하여놓음으로써 음악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책으로 되고 있다.

그는 또한 《용재총화》(10권)를 비롯하여 《허백당시문집》(35권), 《보집》(2권), 《풍아록》(2권), 《주의》(6권), 《부유차담론》(6권), 《금강잡적》(30권) 등 수많은 저작들을 남기어 조선봉건왕조전반기 문학예술발전이 이바지하였다.

성현의 대표적인 시작품으로서 《을밀대》, 《보통문에서 벗을 보내며》, 《룡악산》 등을 들 수 있다.

본사기자

성현

홍정이 되거든 건져라

옛날에 몸시도 린색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마을에 구에 있는 깊은 내를 건너다가 있던 물속에 빠져 생명에 경각에 이르게 되었다.

바빠난 아들이 마을로 뛰어가며 외쳤다.

《우리 아버지가 물에 빠져졌어요. 돈은 얼마든지 벌

니 좀 건져주세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급한속에서도 머리를 내밀고 목이 터져서 소리쳤다.

《이 자식아! 동네사람들과 말을 해봐서 홍정이 되거든 건져주고 한푼이라도 건져주면 건질 생각을 하지 말아...》